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

이안숙 · 차미숙**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model 4)와 Bootstrap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문제·정서초점 반응, 표현격려반응, 처벌·최소화 반응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통감 반응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상담 현장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방식을 파악하여, 아동 및 부모 상담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개입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정서조절능력,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논문 투고일: 2024. 4. 30. 최종심사일: 2024. 05. 28. 게재확정일: 2024. 06. 20.

* 이 논문은 이안숙(2023)의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 ABC 어린이집 원장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아동상담트랙 주임교수

Corresponding author : Cha, Misuk, 201, 18-15, Guseong 2-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E-Mail : chamssuk@khu.ac.kr

I. 서론

유아는 더욱 확장된 사회적 관계 경험을 통하여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점차 사회화된 존재로 발달한다. 유아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서표현을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형태로 조절하는 능력을 뜻한다(Salovey & Mayer, 1990).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필수이며(Cole, Marrtin, & Dennis, 2004),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최혜진·곽효민, 2017), 사회적 유능성(김주련·송하나, 2021) 및 행동문제(유다정·한세영, 2022; 최정은·이소연, 2017; 한지현·나은영·이진숙, 2018)를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이다.

정서조절능력은 부모-자녀 애착 관계를 통해 획득하는 수많은 자질 중 하나에 해당하며(Arden & Linford, 2016), 사회적 관계의 1차 대상인 어머니의 개인 내적 변인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양육스트레스가 대표적이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짜증 등 부정적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Deater-Deckard, 2006), 부모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며 부모역할을 하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다(Coplan, Bowke, & Cooper, 2003).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강선주·임선아, 2020; 박예랑·이주연, 2017; 이지영·이강이, 2021; 정은빈·서귀남, 2021; Denham & Kochanoff, 2002; Spinelli, Lionetti, Setti, & Fasolo, 2020).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본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 유아는 어머니로부터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적절한 방식을 관찰하거나 학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유아의 정서발달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보이는 어머니의 반응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세영·조인영·한아름, 2019). 유아는 대체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내면화하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한다(이혜원·박혜경·이옥경, 2015). 특히, 자녀의 정서적 고통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고 배려해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조절을 증진하며(Davidov & Grusec, 2006), 이는 곧 유아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성과 유능성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나눌 수 있으며(Fabes, Eisenberg, & Berzweig, 1990),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포함한다(이혜원 등, 2015). 우선 지지적 반응에는 자녀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돕고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 스트레스를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정서초점 반응과 유아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표현격려 반응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비지지적 반응에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줄이게 하거나 처벌하는 것과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평가 절하하는 처벌·최소화 반응과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불안과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고통감 반응이 포함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각 반응 방식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지지적으로 반응할수록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진다(강도연·김희태, 2018; 강선주·임선아, 2020; 이예원·진미경, 2016; 한세영 등, 2019; Hong & Wang, 2023). 반면,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유아의 각성을 높이고 비구조화된 행동을 활성화시켜 정서조절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남옥·김영희, 2015; 양다솜·심혜원, 2021; 오지현, 2015; Suh & Kang, 2020).

위에서 살펴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반복되고 누적되는 특징으로 인해,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소진상태를 유발하여(Crnic, Gaze, & Hoffman, 2005), 양육자의 기능을 저하시킨다(Luster & Haddow, 2005).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지지적 반응보다는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이새현·정윤경, 2018; 전미순·이영애, 2009).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이 증가하고 온정적 양육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박남심·송승민·엄희경, 2020; 박현진·김지연, 2023; 손영지·박성연, 2011) 및 모의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가 0~12세 아동의 방임을 예측한다고 보고한 강지영(2017)의 연구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간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단편적으로 검증하는데 머무르고 있으며, 세 변인을 동시에 연구모형에 투입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거쳐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한편, 최근 연구(강선주·임선아, 2020; 이지영·이강이, 2021)를 통해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해당하는 지지적 및 비지지적 반응이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은 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 중심적 반응, 문제 중심적 반응으로 나눌 수 있고, 비지지적 반응은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적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이혜원 등, 2015; Fabes et al., 1990).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지지적 및 비지지적 반응으로만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다양한 반응을 구체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차별적 매개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문제·정서 초점 반응, 표현격려 반응, 처벌·최소화 반응, 고통감 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상담장면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다룰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더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구체적인 반응을 함께 고려하는 상담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구체적인 반응 방식을 함께 고려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문제·정서초점 반응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표현격려 반응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처벌·최소화 반응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고통감 반응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 만 3~5세 학급에 재원 중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24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은 만 5세 100명(41.0%), 만 3세 78명(32.0%), 만 4세 66명(27.0%) 순이었으며, 성별은 남아 138명(56.6%), 여아 106명(43.4%)이었다. 어머니는 30대가 147명(60.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40대 이상이 83명(34.2%), 20대가 13명(5.3%)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고정된 전일제 직장이 130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및 육아 전담이 80명(32.8%)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부업 및 시간제 직장은 37명(15.2%)이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이 101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재학 및 졸업 82명(33.6%),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명(17.6%), 대학원 재학 이상 18명(7.4%) 순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구분		N	%	구분		N	%		
유아	연령	만 3세	78	32.0	성별	남	138	56.6	
		만 4세	66	27.0		여	106	43.4	
		만 5세	100	41.0					
어머니	연령	20대	13	5.3	학력		고졸 이하	43	17.6
		30대	147	60.5		2~3년제 재학 및 졸업	82	33.6	
		40대 이상	83	34.2			4년제 재학 및 졸업	101	41.4
	직업	가사 및 육아	80	32.8				대학원 재학 이상	18
		시간제	37	15.2					
		전일제	130	53.4					

2. 측정도구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elds와 Cicchetti(1997)의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김지윤, 도현심과 김민정(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평가하는 양육자 보고 방식의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정서조절 요인(9문항)과 불안정/부정성 요인(15문항)을 포함한다. 두 하위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단일요인으로 사용한 김지윤 등(2008)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정서조절능력을 단일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불안정/부정성 문항은 역채점 처리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능력의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를 김민정(2008)이 수정·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보고 형태의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고통(12문항),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과 같은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단일요인으로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92였다.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측정하기 위하여, Fabes 등(1990)이 개발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CCNES) 72문항을 이혜원 등(2015)이 요인분석을 통해 28문항으로 재구성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단축판 CCN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수 있는 일상생활의 상황에서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본인의 반응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문제·정서초점 반응 12문항(예: 아이를 위로해 주고 기분이 나아지게끔 한다), 표현격려 반응 5문항(예: 아이가 자신의 두려움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처벌·최소화 반응 8문항(예: 자러 가지 않으면 더 이상 TV를 못 보게 하겠다고 말한다.), 고통감 반응 3문항(예: 아이의 반응 때문에 속상하고 불편하다.)으로 구분된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문제·정서초점 반응 .89, 표현격려 반응 .84, 처벌·최소화 반응 .86, 고통감 반응 .74였다.

3. 연구 절차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 구성과 문항의 내용 등의 적합성을 확인 후 본 조사 설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수도권 소재 10곳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하여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설문지 353부를 배부하였다. 이 중 252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8부를 제외한 244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version 3.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전체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문제·정서초점, 표현격려, 처벌·최소화, 고통감 반응의 매개효과를 개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4번 모델)를 통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

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 신뢰구간에서 표본 수를 5,000개로 설정한 후 Bootstrap을 적용하였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하며, 남아보다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강도연·김희태, 2018; 박수연·이진숙, 2023; 여은진·이경옥, 2011)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령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 상관관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변인 간 선형관계 조건이 성립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1.	4-2.	4-3.	4-4.	5.
1. 성별								
2. 연령	.024							
3. 양육스트레스	.000	-.108						
4-1. 문제·정서초점	.030	-.009	-.418***					
4-2. 표현격려	-.003	-.009	-.399***	.723***				
4-3. 처벌·최소화	.020	-.139*	.412***	-.444***	-.390***			
4-4. 고통감	-.031	-.100	.392***	-.235***	-.268***	.466***		
5. 정서조절능력	.157*	.062	-.650***	.425***	.408***	-.353***	-.237***	
M			2.13	4.04	3.99	1.88	2.31	3.09
SD			.49	.52	.60	.68	.84	.32

* $p<.05$. ***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정서조절능력($r=-.650$, $p<.0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는 문제·정서초점 반응($r=-.418$, $p<.001$), 표현격려반응($r=-.399$, $p<.001$)과 부적 상관을,

처벌·최소화 반응($r=.412, p<.001$), 고통감 반응($r=.392, p<.001$)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수용태도의 하위요인들과 종속변인인 정서조절능력의 상관 또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조절능력은 문제·정서초점 반응($r=.425, p<.001$), 표현격려 반응($r=.408, p<.001$)과 정적 상관을, 처벌·최소화 반응($r=-.353, p<.001$), 고통감 반응($r=-.237, p<.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 간 선형관계 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통제 변인으로 선정한 유아의 성별($r=.157, p<.05$)은 정서조절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연령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문제·정서초점 반응, 표현격려 반응, 처벌·최소화반응, 고통감 반응의 매개효과를 개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Model 4)을 사용하였다. 또한 Bootstrap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재추출된 표본은 5,000개였으며, 95% 신뢰구간의 간접효과 계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였다.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유아의 연령과 성별(더미변수 처리; 남=0, 여=1)은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문제·정서초점 반응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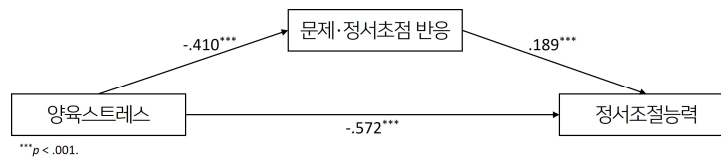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문제·정서초점 반응의 매개효과는 <표 3>과 같다.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문제·정서초점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10, p<.001$).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문제·정서초점 반응은 종속변인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72, p<.001$; $\beta=.189, p<.001$).

<표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문제·정서초점 반응의 매개효과

경로			<i>B</i>	β	<i>se</i>	<i>t</i>
양육스트레스	→	문제·정서초점	-.429	-.410	.064	-6.714***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능력	-.378	-.572	.035	-10.778***
문제·정서초점	→	정서조절능력	.119	.189	.033	3.563***

*** $p < .001$.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문제·정서초점 반응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문제·정서초점 반응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을 적용하였다.

<표 4>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Effect	<i>SE</i>	BootSE	LLCI	ULCI
총효과	-.429	.033		-.494	-.364
직접효과	-.378	.035		-.447	-.309
간접효과	-.051		.019	-.092	-.017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문제·정서초점 반응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Effect=-.051, CI[-.092,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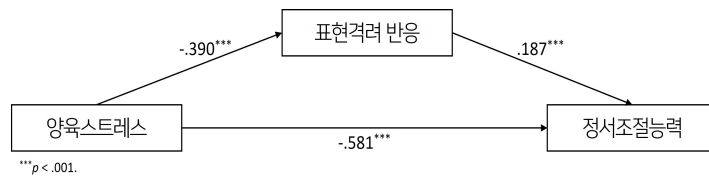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표현격려 반응의 매개효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표현격려 반응의 매개효과는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표현격려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90, p < .001$).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표현격려 반응은 종속변인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81, p < .001$; $\beta = .187, p < .001$).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표현격려 반응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5>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표현격려 반응의 매개효과

경로			B	β	se	t
양육스트레스	→	표현격려반응	-.470	-.390	.074	-6.348***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능력	-.385	-.581	.035	-11.141***
표현격려반응	→	정서조절능력	.103	.187	.029	3.601***

*** $p < .001$.



[그림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표현격려 반응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을 적용하였다.

<표 6>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Effect	SE	BootSE	LLCI	ULCI
총효과	-.434	.033		-.498	-.369
직접효과	-.385	.035		-.453	-.317
간접효과	-.048		.020	-.093	-.016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표현격려 반응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Effect=-.048, CI[-.093,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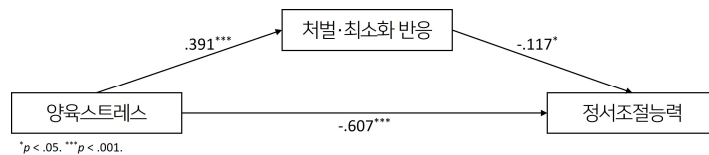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처벌·최소화 반응의 매개효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처벌·최소화 반응의 매개효과는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처벌·최소화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91, p<.001$).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처벌·최소화 반응은 종속변인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07, p<.001$; $\beta=-.117, p<.05$). 따라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처벌·최소화 반응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표 7>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처벌·최소화 반응의 매개효과

경로			B	β	se	t
양육스트레스	→	처벌·최소화	.530	.391	.083	.641***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능력	-.404	-.607	.036	-11.363***
처벌·최소화	→	정서조절능력	-.058	-.117	.026	-2.183*

* $p<.05$. *** $p<.001$.



[그림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처벌·최소화 반응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을 적용하였다.

<표 8>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Effect	SE	BootSE	LLCI	ULCI
총효과	-.434	.033		-.499	-.369
직접효과	-.404	.306		-.474	-.334
간접효과	-.031		.017	-.070	-.002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처벌·최소화 반응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Effect=-.031, CI[-.070, -.002]).

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고통감 반응의 매개효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고통감 반응의 매개효과는 <표 9>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고통감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81, p<.001$).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고통감 반응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665, p<.001$), 고통감 반응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고통감 반응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9>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고통감 반응의 매개효과

경로		B	β	se	t
양육스트레스	→ 고통감 반응	.642	.381	.103	6.277***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능력	-.440	-.665	.035	-12.433***
고통감 반응	→ 정서조절능력	.010	.025	.021	.47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244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문제·정서초점, 표현격려, 처벌·최소화, 고통감 반응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문제·정서초점 반응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문제·정서초점 반응을 거쳐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중심으로 설명하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돕거나 해당 사건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는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유사한 의미를 지닌 변인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문제·정서초점 반응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힌 강선주와 임선아(2020)의 연구와 일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내적 심리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 반응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정은빈·서귀남, 2021). 반면,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고 양육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이 높고(배효정·오민정·김하나, 2023), 이러한 높은 양육효능감은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유발한다(정미현·이경주, 2020). 따라서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도 그 정서에 초점을 두어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새로운 놀이로 전환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자녀를 안내하거나 자녀가 그 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인지적인 비계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이러한 문제·정서초점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을 촉진한다. 문제·정서초점 반응에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 스트레스에 자녀가 대

쳐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이 포함된다. 이러한 반응은 자녀에게 열린 질문을 통해 자녀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는 등의 부모코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코칭역량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다는 김양진과 도미향(2022)의 연구가 본 연구를 일부 지지한다. 이처럼 문제·정서초점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촉진하는 이유는, 자녀의 정서가 과도하게 각성하는 것을 어머니가 막아주고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절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정경민 등, 2017; Eisenberg et al., 2000). 또한, 어머니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다양한 대처 기술이나 방법을 내재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점차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유아를 만나는 아동상담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부모상담과 동시에,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문제·정서 초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훈련하는 개별 및 집단 부모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는 회기 후 부모면담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어머니에게 개방적 질문 등을 활용한 문제·정서 초점 반응을 하는 등으로 상담자가 역할 모델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표현격려 반응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표현격려 반응을 통해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표현격려 반응을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도록 돕는 반응을 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변인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찾기 어려워, 유사한 변인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만 5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밝힌 이지영과 이강이(2021)의 연구와 일부 일치한다. 그 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매개하여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선경, 2017; 조다운·이운경, 2022)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만성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는

스트레스의 반복되고 누적되는 특징으로 인해, 부모역할에 있어 소진상태에 놓일 수 있다(Crnic et al., 2005). 이러한 상태에 놓인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감정이 소진되어 자녀와 정서적 교류를 하지 못하며,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어 신체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김근희, 2023). 따라서 만성적인 양육스트레스로 소진상태에 있는 부모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순간에 그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정서를 알아차린다고 해도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하여 표현을 촉진하는 격려 반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격려 반응의 부족은 자녀의 낮은 정서조절로 이어진다. 반대로 어머니가 표현격려 반응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하는데(서남옥·김영희, 2015; 정슬기·허혜경, 2016), 그 이유는 어머니의 표현격려 반응을 통하여 유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유아를 상담할 때, 상담자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돌볼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개별 상담을 통해 어머니의 성격 요인을 파악하여 어떤 상황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겪어서 양육소진이 되며 이때 어떤 행동이 표출되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한수희·이소희, 2023). 이러한 탐색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로부터 압도당하지 않도록 돕는다. 이와 동시에, 부모교육에서는 내담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그 순간의 감정을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구체적인 표현격려 반응을 연습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최소화 반응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처벌·최소화 반응을 통해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처벌·최소화 반응을 거쳐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을 평가절하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해 처벌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유아의 정서조절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변인으로 매개효과를 밝힌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비지지적인 반응을 많이 하여 만 5세 자녀의 정서조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한 이지영과 이강이(202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을 통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이운경·주영선, 2022; Jackson & Choi, 2018)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비난을 많이 사용한다(강지영, 2017). 또는 자녀를 거부하거나 방임하기도 한다(박현진·김지연, 2023). 이를 고려하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유아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겪을 때 그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처벌적이거나 최소화하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어머니의 이러한 처벌·최소화 반응은 유·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강도연·김희태, 2018; 이지연·곽금주, 2010; Eisenberg et al., 1996), 이는 유아가 정서학습 모델링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Eisenberg et al., 1998). 즉, 어머니의 처벌·최소화 반응에 익숙한 유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적다. 또한, 어머니에게 처벌·최소화 반응을 자주 들은 유아는 자신이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평소에는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다가 특정 시점에 강하게 분출하여 공격적 행동과 같은 부적절한 반응을 하는 식으로 정서조절 곤란을 보일 수 있다(정경민 등, 2017; Eisenberg et al., 1996). 따라서 상담현장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증진을 돕기 위해서 부모상담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처벌·최소화 반응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러한 표현을 줄이고 지지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역할 훈련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고통감 반응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분석을 보면 독립-매개에 해당하는 경로는 유의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고통감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미순과 이영애(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매개-종속에 해당하는 경로인,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고통감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이해원 등(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타인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한다는 정슬기와 허혜경(201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매개-종속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고통감 반응의 문항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기존 CCNES에서는 자녀의 반응에 대해 ‘홍분하며 소리친다.’와 같이 감정의 강도가 더 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반응을 동반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축약형 CCNES 고통감 반응은 ‘아이의 반응 때문에 속상하고 불편하다’ 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행동 반응보다는 어머니의 속상하고 불편한 상태를 나타내는 반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반응이 아닌 내적 상태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닐 수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선행연구(강선주·임선아, 2020; 이지영·이강이, 2021)의 결과에서 비지지적 반응의 매개효과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비지지적 반응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추가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와 그 어머니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지역과 사회경제적 수준을 안배하려고 노력했으나 더 넓게 확대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의 확대와 사회경제적 수준의 안배를 더욱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 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자녀와 오랜 시간을 보낸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잘 파악할 수 있으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질문 중 고통감 반응의 문항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후속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더 섬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란다. 셋째, 부모공동양육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중 어머니만 연구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 참여 또는 가족 내 체계의 역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또는 조부모 관련 변인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물론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구체적인 반응 방식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아동상담 현장에서 양육스트레스 완화뿐만 아니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아동 및 부모 상담의 실질적인 전략을 세우고 개입하는 데 효과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도연·김희태(2018).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1), 259-279.
- 강선주·임선아(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23, 79-105.
- 강지영(2017). 연령별 아동방임의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1(3), 309-329.
- 김근희(2023). 유아기 부모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2008). 공격적 유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경(2017).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모의 양육태도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도미향(2022).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9(3), 75-98.
- 김주련·송하나(2021). 외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3), 45-60.
- 김지윤·도현심·김민정(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박남심·송승민·엄희경(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2), 161-178.
- 박수연·이진숙(2023). 유아의 성·연령·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지**, 6(1), 41-62.
- 박예랑·이주연(2017).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4), 1-17.
- 박현진·김지연(202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4(1), 498-507.
- 배효정·오민정·김하나(2023).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접근적 대처와 정서조절 곤란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9(2), 119-135.
- 서남옥·김영희(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8(2), 21-38.
- 손영지·박성연(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8(2), 125-144.
- 양다솜·심혜원 (2021).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모의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의 매개효과.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4(1), 1-29.
- 여은진·이경옥(2011). 남녀 유아의 정서조절 관련 변수에 대한 구조적관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25-47.

오지현(2015).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공감과 정서조절 방식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6(2), 17-37.

유다정·한세영(2022).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정서조절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3(2), 95-110.

이새현·정윤경(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5(4), 111-133.

이에원·진미경(2016). 유아의 기질 및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1(1), 23-46.

이운경·주영선(2022). 코로나19 시기 취업모의 재택근무와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와 강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40(3), 17-33.

이지연·곽금주(2010).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85-102.

이지영·이강이(202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2(1), 119-134.

이혜원·박혜경·이옥경(2015).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41-169.

전미순·이영애(2009).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4), 97-116.

정경민·윤나영·안선희(2017).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정서지능. **아동과 권리**, 21(4), 565-583.

정미현·이경주(2020). 양육효능감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부모교육연구**, 17(3), 19-37.

정슬기·허혜경(2016). 어머니의 반응유형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지원연구**, 1(1), 1-23.

정은빈·서귀남(2021).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연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25(3), 1-14.

조다은, 이운경(202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학령초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3(4), 425-439.

최정은·이소연(2017).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8(1), 33-48.

최혜진·곽효민(2017).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2(3), 145-168.

한세영·조인영·한아름(2019).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1), 1-14.

한수희·이소희(2023).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소진 척도개발 및 타당화. **부모교육연구**, 20(2), 59-79.

한지현·나은영·이진숙(2018).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문제행동

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인간발달연구*, 25(4), 237-256.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rden, J. B., & Linford, L.(2016). *아동·청소년 뇌 기반 심리치료*(김광웅, 홍주란, 차미숙 공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2), 317 - 333.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3), 376-395.
- Crnic, K. A., Gaze, C., & Hoffman, C.(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4(2), 117-132.
- Davidov, M., & Grusec, J. E.(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 Deater-Deckard, K.(2006).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 Denham, S., & Kochanoff, A. T.(200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 Family Review*, 34, 311-343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Procedure and scoring*. Tempe, Arizona State University.
- Hayes, A. F.(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Hong, X., & Wang, M.(2023). The challenge of Chinese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Child number, parental emotion regul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ustainability*, 15(4), 3812.
- Jackson, A. P., & Choi, J.(2018). Parenting stress, harsh parenting, and children's behavior. *Journal of Family Medicine & Community Health*, 5(3), 10.
- Luster, T., & Haddow, J. L.(2005). *Adolescent mothers and their children: An ecological perspective*.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 73–10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hields, A., & Cicchetti, D.(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 Psychology*, 33(6), 906–916.
- Spinelli, M., Lionetti, F., Setti, A., & Fasolo, M.(2020). Parenting stress during the COVID 19 outbreak: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 emotion regulation. *Family Process*, 60(2), 639–653.
- Suh, B. L., & Kang, M. J.(2020). Maternal reactions to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Gender difference in mediation of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 144 - 154.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Emotion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ee, Ansuk* · Cha, Mi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emotion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244 mothers of young children aged 3 to 5 in daycare centers. Participants answered questionnaires that measured parenting stress,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of their childre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6.0. Furthermore,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by employing the PROCESS macro for SPSS version 3.5 (Model 4), and the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examined by bootstrapp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Problem-emotion-focused responses, expressive encouragement, and punishment-minimization responses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Conversely, distress reactions had no mediating effect. This research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link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to emotion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and especial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tern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for emotion regulation. The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argeted counseling strategies for both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Keywords :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stress, matern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Principal, ABC Daycare Center

** Chair of the Child Counseling Track,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Civic Engagement, Kyung Hee University